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44호

Saturday, June 15, 2024 A

정신질환 한인 또 비극... 짓눌려 숨졌다

한인 운영 바이시클 카지노서
보안요원 5명, 40대 한인 제압
수갑채워 3분간 무릎으로 눌러
공분일으킨 '플로이드' 닳은꼴
여동생은 충격에 극단적 선택
유가족, 카지노 상대 소송 제기



변호인단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망한 조나단 정씨를 다섯명의 보안요원들이 짓누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사진 속의 빨간 표시는 정씨의 상체를 누르고 있는 보안요원의 무릎의 구체적인 각도와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변호인단 제공]

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정신질환을 앓던 비무장 상태의 한인 남성을 주차장 구석으로 몰아간 뒤 넘어뜨리고 수갑까지 채운 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4년 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닳은 꼴이 한인사회에서 벌어졌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숨진 남성의 여동생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고, 유가족은 현재 해당 카지노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LA 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부모인 정정식, 정인순, 사위 필립 터먼 씨는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호텔&카

지노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wrongful death) ▶위협(assault) ▶폭행(battery) ▶태만적 고용, 감독 및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인디라 캐머런 벅크스-테렌스 존슨)은 지난 1월29일 세 번째 수정된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법원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끝내고

내주 내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 카지노는 지난 2023년 한인 기업인 파크퀘스트 카지노(대표 존 박)가 1억30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24일 오후 3시 57분쯤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이 본지에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카지노 보안 요원 다섯 명이 조나단 정(당시 45세-한

국명 동인)씨를 주차장에서 넘어뜨리고 엎드려 있는 상태의 정씨를 무릎으로 짓누른다. 이후 정씨의 다리를 뒤로 젖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양손에 수갑까지 채운다. 보안 요원들이 정씨를 짓누른 시간은 약 3분이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호흡 곤란 등으로 구토까지 한 뒤 정신을 잃고 곧 사망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보안요원들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행, 억류 등의 결과로 정씨는 아스팔트 위에서 숨을 거둬야 했다"며 "정씨는 카지노 측의 퇴장 요청을 제대로 준수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를 계속 쫓아가며 건물 밖에서까지 위협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에는 보안 요원 다섯 명이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듯 정씨를 약 5분간 서서히 뒤쫓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던 정씨는 카지노를 나왔음에도 보안 요원들이 계속해서 뒤쫓아오자 수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심지어 위협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자 정씨는 겁에 질린 상태에서 한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며 차량에 탑승하려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정씨는 당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며 '언어(verbal)' 문제만 보였을 뿐 다른 고객이나 직원 등 그 누구에게도 폭행 등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카지노 측의 요구대로 이미 건물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정씨를 쫓을 이유가 더는 없었는데도 뒷에 빠뜨리듯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결국 철조망으로 사방이 막힌 카지노 주차장 구석으로 몰렸다.

동영상을 보면 도망가려는 정씨를 한 보안요원이 밀치며 넘어뜨렸고, 다섯 명이 동시에 정씨를 덮친다. 보안요원들은 정씨를 짓누른 지 약 3분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그제야 정씨의 몸을 제대로 뒤집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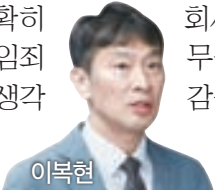
▶5면 '한인비극'으로 계속 장영지

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금감원장)

"주주 이익보호 확대와 묶어서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상법상 규정된 특별배임죄 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주주 충실의 의무를 도입하려면 이번 기회에 배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사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배임제 존폐 논쟁이 상법 개정과 맞물려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원장의 발언은 상법을 개정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문제에 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배임죄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다 보니 소액주주 보호가 다소 미흡할 경우 배임죄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형사 범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경영) 결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 다름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태슈켄트=현일훈 기자 ▶2면 '배임죄'로 이어집니다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 기념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장병과 당시 참전용사와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폐입
순금 야기 물반지, 목걸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무수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14일에도 계속됐다.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강성 친명인 김승원·장경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야당 몫인 한자리마저 민주당 의원으로 채운 것이다. 그러곤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직강비서관 등을 증인(12명)과 참고인(3명)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두곤 정청래 위원장이 "앞으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도 이날 야당 단독 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원점으로

단독으로 법사위 열고 소위원장 선임 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의결 국민의힘 "원구성 협상 원점서 다시"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둘러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0여 일, 이처럼 역대 국회에서 못 보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다. 앞서 5일 야당에 의한 첫 국회 개원이 이뤄졌고, 10일엔 1987년 체제에서 처음으로 야당이 운영위원장직을 차지했다. '국회의장=제1당, 법제사법위원장=제2당'이란 근래의 관행도 더불어 깨졌다.

이 같은 일방독주는 20대 국회 말에 제1·2당이 합의처리에 왔던 선거법을 제2당(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제1당(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것이나, 21대 국회에선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것, 그 이상이란 평가다. (그래픽 참조)

민주당에선 "관례는 깨지기 위한 것"(정청래)란 주장이 나오지만, 민주당의 작동을 위해선 관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관례가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 제도적 자제를 의미해 서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다. 이게 무너지면 지금 국회처럼 "합법적으로 극단적인 전술을 활용하는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주변에 정중히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정치 속 깨진 관례들

원구성

판례 국회의장 제1당-운영위원장 여당-법사위원장 제2당
•21대 전반기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세 자리 차지
•21대 후반기 법사-운영위원장-국민의힘(대선 이후 여당)
•22대 전반기 1당이자 야당인 민주당, 세 자리 차지

관례 여야 합의의 깨짐

•21대 전반기 사상 첫 여당(민주당) 단독 개원
•22대 전반기 사상 첫 야당(민주당) 단독 개원

판례 상임위원장단 의석수 따른 배분

•21대 전반기 민주당 1년여간 18개 상임위원장 독점

국회 운영

판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합의의 우선
•20대 후반기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토론 무력화
•21대 의원 탈당으로 안전조직원 무력화

특검법

판례 여야 합의의 처리로 13건 시행
•21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선거법

판례 1·2당 합의 처리
•20대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일방처리

악순환"(정치학자 에릭 벨슨)을 불러온다.

정치학자들은 현 상황을 대단히 우려한다. 장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다수당의 폭주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하는 중"이라며 "소수 의견을 위해 존재하던 많은 관례가 깨지고 있다. 다수에 의한 지배에는 소수에 대한 경청과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도 "국회는 다원주의적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이 우세할 수 없다"며 "상임위 구성할 때 과거에는 한 달이라도 고민하는 척을 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처럼 '상임위 줄 때 가져가라'는 식의 존중이 없는 태도가 정치를 극단으로

"배임죄로 이사회 과도한 처벌 우려... 경영판단 원칙 명확히 할 필요"

▶ 1번 '배임죄'에서 이어집니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과 이날 발언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면서도 "현재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

계가 반발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묶어 논의하자며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지만, 반발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법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이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은 여기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의 무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주주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같은 주주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는 이익이 다를 수 있는데, 이사에게 법으로 이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면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보호해야 할 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소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소송의 남발과 그에 따른 경영 위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상법 위반 시 배임죄 등이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사 충실의 무 확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점을 막기 위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해 구체적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금감원의 개별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배임죄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없애줘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어떤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원장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큰 틀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방법 어느 수준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이 원장 의견대로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히 사라지진 힘들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이 면제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기업을 압박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령 쪼개기 상장이 문제라고 하면 쪼개기 상장과 관련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면서 "주주 보호를 이사 충실 의무로 광범히 하게 정하면, 결국 이에 따른 혼란을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태수켄트=현일훈 기자

워싱턴 날씨 (°F)

16일(일) 87-71	19일(수) 93-75
17일(월) 94-76	20일(목) 93-74
18일(화) 96-75	21일(금) 98-78

6월 15일(토) 85~6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RE/MAX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장,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장, 0.45에이커	SOLD Rockville \$280,000 콘도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장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타운홈, 방4, 화장, 차고2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장3.5, 차고2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장, 1,438sf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장2.5, 차고1	COMING SOON Rockville 싱글홈, 방5, 화장, 차고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장2.5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장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RENTED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장	RENTED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장, 차고1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장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장
--	--	---	--	---	--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장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RENTED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장	RENTED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장, 차고1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장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장
--	--	---	--	---	--

운동하려고 빚까지 낸다

Z-밀레니얼 세대 '내 몸 가꾸기 열풍' 소득 15%까지 운동에 지출

최근 피트니스 업계가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는 배경에는 Z세대(1997-2012년생)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의 운동 투자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 앤 컴퍼니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24년 전세계 운동 등 웰니스 마켓 규모는 1조8천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4800억달러로 최근 10년새 매년 5-10% 성장하고 있다.

미국인 82%가 일상생활 최대 화두로 건강관리를 꼽고 있는 가운데, 건강관련 각종 서비스와 용품 구매를 주도하

는 계층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였다. 두 세대의 건강관련 서비스와 용품 구입액은 X세대(1965-1980년생)와 베이비부머 세대(1945-1963년생)를 압도했다.

저가 피트니스 클럽인 프래티 피트니스 측은 "2022년 이후 Z세대 회원권 판매 증가율이 다른 어떠한 세대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나탈리아 페트르젤라 뉴스쿨 대학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소득 대비 주거비용 지출 비율을 30%로 잡고 X세대가 소득 대비 저축비율 20%를 고수하는 원칙을 말한다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운동관련 지출 비용이 총 소득의 15%를 넘게 가져가는 것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심

지어 20% 이상의 지출하는 이들도 흔하다.

이들은 자신의 운동능력과 신체조건 등을 감안해 연중 스케줄을 짜고 트레이너를 통해 훈련하고 있다. 심지어 저소득 Z세대 청년들은 운동 관련 비용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운동을 육체적 훈련 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 재정 관리를 하듯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면역 등 운동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웰니스 관련 지출이 급등했으며 이같은 추세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기자회견에서 우태창 회장(아랫 줄 가운데) 및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 임원들이 은영재 씨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은영재 씨, VA한인회장 사퇴해야”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 임원들이 한국에서 횡령 등 혐의로 벌금 2500만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장의 사임을 재차 촉구했다.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퇴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머리띠를 두른 채로 "어영부영 임기를 채우려는 은영재 회장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태창 회장은 "6월 말로 예고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워싱턴 방문 및 간담회에도 은근슬쩍 은영재 씨가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오는 8월 광복절 기념식도 은영재의 버지니아 한인회가 타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관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서 "워싱턴 한인 단체장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범죄자에게 너그러운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은 더 큰 죄를 지어 상대적으로 그런 유죄평결을 넘어가 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회장과 이날 나선 협회 임원들은 "총영사관이 은영재 씨가 여전히 회장 자격으로 있는 버지니아 한인회를 인정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회장은 이날 은영재 회장이 한국에서의 변호비 등으로 썼다는 10만달러의 출처와 이것이 동포단체 공금이 아니라는 증거, 버지니아 한인회 종합기술학교의 명확한 결산보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세용 기자**

한미우호 역사 탐방

한인 2세 학생들이 워싱턴 DC 소재 의회 도서관과 대한제국 공사관 탐방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탐방에는 메릴랜드 래리 호건 전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동행했다.

지난 13일 이들은 워싱턴 DC 소재 의회 도서관을 견학하며 아시아 자료실과 대한

제국공사관 박물관에 방문해 <미래를 위한 멘토링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회 도서관의 한미 관련 문건과 정보를 탐구하고 대화하면서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으며 한미 우호의 역사적 현상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우호와 동맹의 시작점을 학습하고 체험하면서 한인2세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계기의 자리가 됐다. **김윤미 기자**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

하원 8명·상원 6명 추가 참여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중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은 2015년부터 매년 국내 4만 9000여 명의 입양아 출신 성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혜를 받게 되는 입양인들 중 절반 가량은 한인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서류 절차 미진행, 과양 등의 이유로 시민권



아만다 조(왼쪽) 박사가 법안 상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게 된다.

올해 법안은 마리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잔 폴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단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6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프롬발라 제이아팔(민주·워싱턴), 영 김(공화·가주),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스틸(공화·가주) 등 8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상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했고 초당적인 지지와 인권 보호 차원의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해온 미주한인 유권자연대(KAGC)는 상하원 양당내 법안 지지분위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국내 한인들의 참여와 여론 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MD 엘리콧시티 순회영사 서비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오는 22일(토) 오전9시부터 낮12시까지 메릴랜드한인회관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순회영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재외국민 등록을 포함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확인,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신고 등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 처리 업무와 필요한 서류 관련 상세내용 등은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02-939-5653 안내: 410-961-3466 (메릴랜드 한인회)

① 워싱턴중앙일보 광고·구독 : 703-281-9660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통에 관한 일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VUIM
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원

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

미래가 촉망되는 대학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원에서 한의사의 꿈을 이루세요!

미국 전역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임상실습 제외)
www.vuim.edu

연방정부 학자금 FAFSA

입학조건

- 석사과정: 대학 2년 이상 (60학점) 학력 소지자
- 박사과정: 대학 4년 이상 졸업자
- 편입생 및 의료계 종사자 프로그램 기간 단축 가능
- 유학생 1-20 자체 발행

협력 교육 기관

- Inova Peterson Life With Cancer Center
- 경희대학교 한의대학병원
- 부산대학 한의학 대학원 부속병원
- 홍콩대학교 동의학 한방병원
- 중국 상해 한방대학

프로그램

석사과정

- Master of Science in Acupuncture **침구 석사 과정: 3년**
- Master of Science in Oriental Medicine **침 + 한약: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석사 + 박사 복수 전공가능)

- 154 + 25 credit 복수전공
- Professional Doctor of Acupuncture **한의학 전문 박사과정 1년 (미전역 100% 온라인 수업)**

자격증

- Certification in Chinese Herbal Medicine Program (MSA 자격을 갖고있는 한의사분에 한정함)

입학상담 University Main Phone Line (For all campuses)
703-323-5690 (M-F: 9am - 5pm)
571-243-4251 (본교 한국어 상담)

Virginia Campus
703-323-5691
1980 Gallows Road, Vienna, VA 22182

New Jersey Campus
609-572-5037
1010 Edgewater Ave, Ridgefield, NJ, 07657

Georgia Campus
470-723-4866
3525 Mall Blvd NW, SA 1, Duluth GA 30096

매물 늘고 금리 하락 ... 하반기 부동산 훈풍 전망

“1분기에 주택시장 바닥했다”
레드핀 CEO 등 낙관적 전망
타운은 4월부터 거래 증가세
높은 집값 극복 역부족 시각도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년 하반기보다 바이어에게 유리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이 전망됐다. LA지역 주택가. [중앙포토]

2024년 하반기는 주택 시장의 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매물 가뭄이 해소되고 모기지 이자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주택 가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급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재고가 충분치 않아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부동산 중개사이트 레드핀의 글렌 켈먼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올해 초 1분기에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 하반기 동안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LA한인타운은 지난 4월부터 매매 건수가 조금씩 늘었고 이런 추세는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용 부동산은 주택 매물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도 “4월부터 서서히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모기지 금리 하락을 기다렸던 실질 바이어들까지 시장에 진입하면 작년 하반기보다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매물 증가

지난 봄부터 주택시장에 매물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르페 디본가이는 “더는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주택소유자들 사이

모기지 금리 고정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팬데믹동안 3% 미만 초저금리를 받은 주택소유주는 이자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하자 이사를 미뤄 지난해 매물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터닷컴의 주간 주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일로 끝나는 주 동안 새 매물은 1년 전보다 2.1% 늘었다. 동기간 기존 재고는 전년 대비 35.5%나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량 상승 추세

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구매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기지 금리 하락

하반기에 모기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7%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프레디맥 데이터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금리 모기지는 지난달 20일 7.22%까지 상승한 후 지난 6일 6.99%로 하락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시카 라우츠는 “9월 말까지 연준 기준금리 움직임으로 4분기에 모기지 이자율이 6.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한된 주택 재고로 이자율이 하락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해 동일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모기지 금리가 실제로 내리막 추세를 보일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달렸다.

지난 12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에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하고 연내 한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해 모기지 금리 하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

상반기 주택시장에서 거래 건수가 둔화하는 동안에도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대도시 주택시장의 약 90%가 올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레드핀에 따르면 전국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39만22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반기 내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패니매는 연말까지 전년 대비 4.8%, 모기지은행협회(MBA)는 4.3% 상승을 예측했다. NAR은 연말까지 2% 미만 소폭 상승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내놨다.

하반기에 금리가 하락해도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뱅크레이트 이코노미스트 제프 스트로스키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실제로 냉각되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장 여름 동안 주택 가격이 또 다른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

농심 제3공장 미국 대신 부산에

17년 만에 한국 신규 공장 건설
제2공장 라인 증설 하반기 가동

농심이 제3공장 건설을 미주지역에서 한국 부산 녹산 공단으로 선회했다.

1년 전만 해도 2025년 미주지역에 제3공장을 착공해 2030년 연 매출 15억 달러 매출 달성을 계획했다. 농심이 부산 녹산 공단을 낙점한 것은 미국에서 공장 부지가격 및 인건비 등 건설 비용이 급등해서다.

신동원 농심 회장은 올해 봄 한국에서 제3공장 건설을 시사했다. 3월 주주총회를 마치고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수출 실적이 좋아 농심이 가진 공장 중 평택 포승이나 부산 녹산 등 빈부지에 수출 전용 라면 공장 신설을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농심이 한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2007년 부산 녹산 공장에 이어 17년 만이다. 제3공장을 짓는 것은 신라면 등 라면 제품 인기가 전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심에 따르면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타고 신라면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한국에서 출시한 신제품도 큰 반응을 얻으며 지

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실적 공시에 따르면 해외 법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25% 상승해 전체 실적 개선 견인 역할을 했다. 해외매출액은 2019년 8억 달러에서 2023년 13억100만 달러로 62.2%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매출액 중 캐나다 포함 미주법인 매출이 5억3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 법인은 제2공장 가동 효과로 코스트코, 월마트 등 현지 유통업체 매출이 확대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4%, 131.4% 상승했다.

농심은 1984년 샌프란시스코에 미주 사무소를 개설하며 미주시장에 첫 진출했다. 2005년 LA 제1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서부지역과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를 넓혀갔다. 농심은 그 당시 미주라면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저가 일반 라면에 프리미엄 제품으로도 전장을 내밀며 라면시장을 잠식했다.

농심은 현재 미국에 2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2공장 증설 중인 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

“정신질환 이해 못한 경찰의 명백한 과실”

LAT ‘양용 사건’ 칼럼 게재
“근본 시스템 개선 계기 돼야”
아들 잃은 애끓는 모정 언급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총을 든 경관의 지시에 10초만에 순응하길 기대하는가.”

LA타임스(LAT)가 칼럼(사진)을 통해 양용의 경찰 총격사망은 예고된 사고이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신문의 프랭크 송 칼럼니스트는 2023년 LA카운티가 무려 7390만 달러를 들여 정신병 모바일 대응팀을 꾸리고 339명의 클리니션을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는 양용의 사건처럼 끔찍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칼럼은 장례식 후 양씨 가족들의 말을 인용해 “양용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경관들이 폭력적이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총을 들이대기까지 누구도 다치지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동시에 자사 보도를 인용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A경찰국 경관들의 총기 발사 사건 중 25% 가량은 정신병을 가진 시민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었고, 2023년에도 34건의 경관들의 총격이 있었으며 여기에 정신병 환자가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료 대상에게 범죄자 검거와 제압

을 훈련받은 경관들이 투입된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지적이다.

양용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 로페즈 경관은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경관이 총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환자가 갑자기 현실을 깨닫고 이성을 되찾아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옳은지 칼럼은 물었다.

이어 양극성 조현병을 앓았던 양용은 실제 따듯하고 가족을 챙기며 노래를 좋아했던 성실한 아들이자 형제였는데 이런 병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관이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하면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칼럼은 설명했다. 양용의 완쾌를 바랐던 어머니 양명숙씨는 직접 아들의 약물을 먹어보며 효능과 부작용을 이해해보려고 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신문은 “환자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라는 양용의 어머니 양명숙씨를 인용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최인성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환경친화 태양광, 전기세 걱정도 '안녕'

태양광 산업이 미국 내 한인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은 산업 분야를 넘어 일반 건물 및 주택에 설치돼 활용되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기세 비용을 90%-100% 절감할 수 있다. 미국내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서 태양광은 에너지 비용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가정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집이나 건물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세 0달러가 나오는 주택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매력을 갖는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태양광 업체



인 선에너지는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태양광 패널을 보급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선에너지는 한인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에너지 측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객들의 솔라 시스템 구매 및 설치비용을 100% 부담한다. 한인 고객들은 돈 들이지 않고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는 전기요금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며, 대신 월간 100~150 달러 수준의 리스비용을 받는다.

실제로 대부분 한국인 고객들은 이 같은 리스 옵션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

투자금이 들어가는 옵션은 꺼리는 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선에너지 측은 현재 전기세 고지서를 보내면 솔라 시스템 설치 후 절약 가능한 금액과 프로젝트 가격을 잘 정리해 무료로 견적서를 보내준다고 말했다.

한편 선에너지사는 한국기업 한화가 제작한 최고 등급의 솔라패널을 사용하며, 가장 우수한 엔페이스(ENPHASE) 마이크로 인버터를 도입, 핸드폰으로 솔라 패널의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장점을 알리며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현대인 위한 신세대 영한사전

이원택 정신과 전문의 발간

이원택(사진) 정신과 전문의가 새로운 개념의 신세대 영한사전(사진)을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전은 시사용어, 전산망 용어, 신조어 등을 수록한 책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최신 용어들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는 이번 사전 발간 전에도 미-한 변형 사전, 미-한 원형 사전, 영-한 지구촌 사전 등을 출간했다. 재미시인협회 회원이기도 한 저자는 사전류 저서



외에 만화경, 요지경, 무아경, 메타 라이팅 등의 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자는 "영-한 신세대 사전은 차세대들이 알아야 할 말들을 엄선해 편찬했다"며 "젊은 세대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은 한국의 온라인 책 판매 사이트와 한인타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문의: wonlee0120@gmail.com

우봉 김정현 화백 '묵송도'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화백이 대한민국의미대전에서 수상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캘리그래피 화단'을 이끄는 우봉 김정현(79·사진) 화백은 제43회 대한민국의미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특선을 받았다. 이는 2014 '모란', 2015 '매화', 2016 '소나무', 2017 '목매화'에 이어 5번째 수상 기록이다.

이번에 출전한 '묵송도'는 김 화백이 어릴 적 공원에서 보았던 푸른 소나무



를 기억하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한다. 특히 유자효 시인의 시 '소나무'처럼 매서운 바람에도 거침이 없고 잎지 않는 푸르름을 형상화했다.

김 화백은 현재 라스베이거스 중앙교회, 안디옥교회, 한인회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매년 전시회를 통해 김 화백과 제자들의 작품을 지역 사회에 선보이고 있다.

이은선 샌디에이고 객원기자

"1달러로 정수기 설치"... '아쿠아비' 인기몰이

'부담없는 가격, 깨끗한 물'

저렴한 렌트비, 안전한 필터 '눈길'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인 정수기 렌탈 대표 업체 '아쿠아비'(AQUAVI, 대표 박용래)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1년 애틀랜타에서 설립된 아쿠아비 정수기 사는 조지아를 비롯한 동남부는 물론 뉴욕과 뉴저지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 업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쿠아비 정수기는 저렴한 렌트비, 깨끗한 수질,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미 6,000여 곳의 가정과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업체 측은 필터가 핵심인 정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산 필터를 사용한다는 점이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거기에다가 날로 높아지는 정수기 가격에 비해 "부담없는 렌트 가격"도 매력적이다.

냉-온 정수기를 렌탈하는 고객들은 등록비, 설치비, 디파짓 없이 첫달 무조건 1달러만 내고 가입이 가능하다. 제품에 불만이 있으면 30일 이내 조건 없이 철거해 준다. 렌탈비도 저렴하다. 언더싱크형 정수기의 경우 미네랄일 경우 월 22달러, 알카리 수 정수기는 월 27달러다. 또한 6개월 마다 무상 필터 교환 및 무상 소독 청소 등 애프터 서비

스도 철저하다.

종류도 다양하다. 역삼투압 정수기, 알칼리수, 언더싱크형 정수기는 물론, 요즘 주부들에게 사랑 받는 카운터 탑형 정수기도 부담없는 가격(200~249달러)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이밖에도 공기청정기, 샤워 필터 등의 제품군도 다양하다.

아쿠아비 정수기 박용래 대표는 아쿠아비가 빠른 시일 안에 유명 정수기 업체로 부상한 것이 무엇보다 이같은 고객 편에서 생각하는 가격 정책과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는 "4단계 필터로 정수 능력이 탁월한 아쿠아비로 한인 가족들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571-677-2555

웹사이트: www.aquaviwater.com

무료 설치 요창: 1-800-850-6885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미국·우크라이나 10년 안보 협정

대법, '총기자동 연속장치' 금지 폐기

바이든 "푸틴에 보내는 메시지" 젤렌스키 "나토 가입 징검다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짜리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의 보르고 에나치아 리조트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자 안보 협정을 맺은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에 언제든지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군을 파견하고,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와 기지를 훈련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기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7 정상들이 이날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활용해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리(G7)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미국과의 양자 안보 협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은 곳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이날 일본에 이어 미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개별 협정 체결국은 총 17개국으로 늘어났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에 올해 45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와 기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와 협정에 서명했다"며 "재건과 복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일본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택(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택(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범프 스택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택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이 장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택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배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ATF의 이 금지 조치가 관한 남용인지 여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톱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별적 발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톱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다수의 사람을 그토록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톱을 썼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결정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저는 의회가 범프 스톱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선캠프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거리에 전쟁을 위한 무기가 있을 곳은 없다"면서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 및 지역사회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중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에 낙태, 총기 등의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나토, 우크라이나 지원·훈련 직접 조율... "트럼프 복귀 대비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훈련을 직접 조율하기로 14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사진)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과 훈련 조정을 이끌기 위한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이라는 비공식 협의체 틀 안에서 이뤄지던 업무 일부가 나토 공식 임무로 전환되는 셈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를 토대로 "7월 워싱턴(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착수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

리의 지원이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에 따르면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기부 계획을 조율하고

각국에서 기증한 무기나 군사장비의 전달·수리 작업 관리를 담당한다.

나토 회원국 내 군훈련 시설에서 이뤄지는 우크라이나군 훈련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에서 총 7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UDCG 협의체 자체는 미국이 계속 이끌되 실무적인 부분은 나토가

책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 주도로 이뤄지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사전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나토 병력 투입 등 전쟁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계속 금지시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토가 분쟁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회의 개막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주 브린디시의 보르고 에나치아 리조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막했다. 이들 정상들은 사흘간 우크라이나, 중동, AI, 이주인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사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

바이든 차남, '노트북 폭로' 줄리아니 前뉴욕시장 민사소송 취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이 '노트북 폭로'의 당사자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그의 전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14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새로 제기된 법원 서류를 근거로 헌터가 줄리아니 전 시장 및 그 측근을 대상으로 제기한 7만5천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헌터가 약물을 하고 성

앞서 줄리아니 전 시장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인 2020년 대선 도중 헌터가 델라웨어 윌밍턴의 한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을 입수, 내부에 저장된 다수의 자료를 폭로했다.

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비롯해 우크라이나 한 에너지 기업과 유착 관계를 드러내는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헌터는 소장에서 해당 노트북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이 입수·복사하고 해킹 및 변조를 진행한 자료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은 시인했다. 헌터는 최근 불법 총기 소유와 관련한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

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 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영상들은 그에 대해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헌터는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와 관련해 탈세로도 기소된 상태며,

이 과정에도 해당 자료들이 그에게 불리한 역할을 했다.

악시오스는 "현재 파산 상태인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이번 합의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리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1억4천800만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상금 및 수감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 대법외교 불어/중국어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트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oway

코웨이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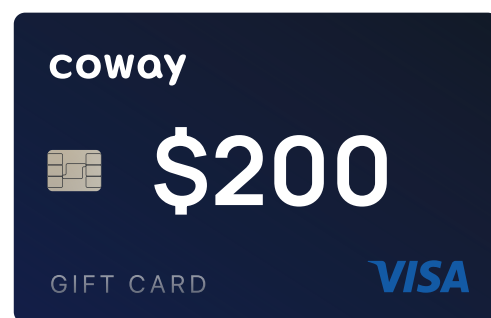
여름준비 프로모션

2024년 5월 29일 ~ 6월 26일

프로모션 1

아이스정수기 구매시

\$200 기프트카드 증정



• 주문조건 : 렌탈 혹은 일시불
• 해당제품 : CHPI-280L, CHPI-620L PLUS

프로모션 2

해당제품 2대 구매시

LG 코드제로 청소기 증정

\$400
Value



• 주문조건 : 렌탈 1대 + 렌탈, 재렌탈 혹은 일시불 1대
• 해당제품 : P-6320L, CP-6330L,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22L, CHP-5710L, CHPI-280L, CHPI-620L PLUS,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BB-14, Massage Chair
• 고객번호당 1회 제한

프로모션 3

안마의자 구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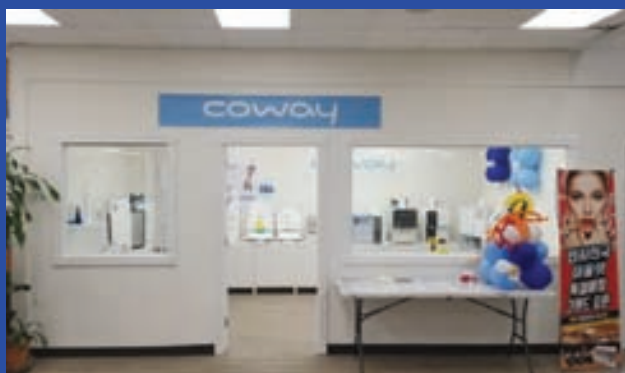
\$900(등록비) 할인



• 해당제품 렌탈시 (등록비 \$900 구간 only)

사은품은 조기 품절 시 사전공지없이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매인에게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디자인은 당사의 지적재산으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DMV지역 코웨이 법인매장



베세토 지하 1층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센터빌 롯데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 MART
13818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제품 구입 및 문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Washington, DC **703-992-0835**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책임

“금리,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건 과거 사고... 8월 인하를” “물가·부채·환율 리스크... 미국 금리 인하 보가며 결정해야”

금리 선제적 인하론 김영의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캐나다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내렸다. 한국은행도 연준에 앞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필자의 답은 ‘예스’다. 시장은 연준이 올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월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7만2000개 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 조사가 따르면 5월 고용이 40만 8000개 감소했기 때문이다. 파르타입 고용이 28만6000개 늘었지만, 풀타임 고용은 62만5000개 줄었다.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그만큼 불확실하게 보는 것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4월(3.4%)을 저점으로 올해 5월에는 4%까지 상승했다. 실업률 증가는 다가올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실업률 증가는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 1월에서 올해 5월 1일까지 통계로 분석해 보면 미국의 대표 소비심리지표인 컨피던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와 실업률 사이에는 상관관계수가 마이너스(-) 0.78로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과 이익이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은 고용을 줄일 확률이 높다.

실업률이 상승하면 소비 위축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또 실업률이 올라갈 때 주가와 달러자수도 하락했다. 2008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보면 실업률과 S&P500지수 사이 상관관계수는 -0.63으로 비교적 높았다. 같은 기간 실업률과 달러지수 사이에도 역의 상관관계(상관관계수 -0.68)가 있었다. 시간의 문제이지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시점이 9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한은이 그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될 것 같다. 한은은 물가 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 기준 2%(전년 동기 대비)

다. 문제는 ‘언제 물가상승률이 2%에 이를 것인가’이다. 2022년 5.1%였던 물가상승률이 2023년에는 3.6%로 낮아졌다.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2.5%와 2.1%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2.4%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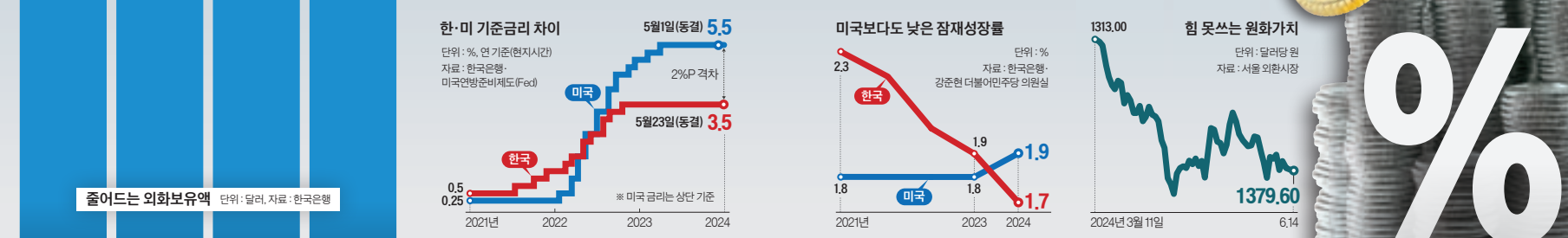
한은이 분기별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4분기 물가상승률은 2%에 거의 근접하리라고 추정하는 것 같다. 한은은 근원물가상승률이 올해 2.2%(하반기 2.1%), 내년 2.0%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필자의 전망 모델에 따르면 8-12월 물가상승률은 2.0% 안팎이다. 주로 소비 등 내수 부진이 물가 안정 요인이다.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 GDP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연간 성장률이 2.5%라면 2분기부터 GDP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필자가 추정하면 올해 1분기에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웃풋갭’(output gap)이 거의 제로(0)에 가까워졌다. 1분기 높은 경제성장으로 잠재 GDP 밑에 있던 실제 GDP가 잠재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2분기 이후에도 아웃풋갭은 제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물가와 아웃풋갭을 고려하면 적정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테일러 준칙’이다. 이는 ‘실질금리를 어떻게 추정하는가’와 ‘어떤 물가상승률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2000-2023년 기준금리와 근원물가상승률의 차이(평균 0.61%)를 실질금리로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2분기 적정금리는 3.0%, 하반기에는 2.7% 정도로 나온다. 현재의 3.5%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

해서 높다는 의미이다. 시장은 이미 한은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금리 가운데 하나가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국고채 3년 수익률이 평균 3.36%로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우리 금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0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보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 낮았는데도 외국인은 한국채권 13조5620억원 순매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순매수는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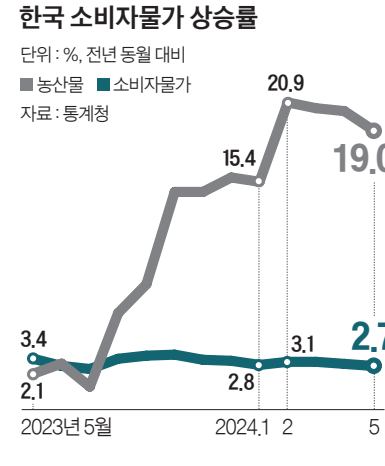
이런 요인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우리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유럽·캐나다처럼 한국도 2%대 물가지만... 농산물·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주요국 2%대 머물자 속속 금리 인하 한국도 표면적으로는 물가안정세 사·삼겹살 등 생활물가는 못잡아 “국제유가 불안 2차 인플레이션 우려”

유럽중앙은행(ECB)과 G7(주요 7개국)의 캐나다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물가가 꺾이고 있어서다. 각각 중앙은행이 지난 2년간 물가 급등과 치른 전쟁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일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 아니라 물가가 더 높아지는 인내심을 갖는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현지시간) 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내린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하락이 충분히 진행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월) 10.6%에 달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고 있다. 하루 전인 5월 금리를 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캐나다은행

(BOC)의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완화되는 긴축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국도 표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안을 들어왔다. 하지만 한은은 아직 ‘물가 목표지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미션팅장은 “아시아의 가격 상승 압력은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산물 물가는 19% 상승했다. 특히 직황 부진으로 공금이 크게 줄어든 사과와 80% 넘게 급등했다. 임정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상기후 등이 먹거리 물가를 위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난해 한국은 개화기와 생육기에 폭우와 이상저온이 찾아오면서 특히 과일인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부진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품종 개량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대표적 외식 메뉴인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서울 기준으로 2만 원을 처음 돌파했다. 김밥과 자장면·비빔밥·김치찌개·떡볶이 등 다른 외식 품목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올해는 불철 가뭄이 들지 않아 작황 부진이 지난해보다는 덜했다는 점이다. 또 정부의 선제적 비

공요금도 하반기에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중동 분쟁 장기화, 미 대선 등도 하반기 변수 중 하나다. 특히 이들 변수는 국내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0-2023년 한국의 인플레이션 중 글로벌 평균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대선과 미-중 갈등, 전쟁 리스크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져 달러 강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유가·휴가철 휘발유 수요, 방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86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동결 기조가 이어졌던 전기와 가스요금 등

가 더 위축될 게 뻔하고, 이는 곧바로 기업 실적으로 이어져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나마 4월과 5월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이 무너지며 나타나는 문제를 관리하고, 건전한 기업이 자금 시장 확보로 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도 당장 고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응해 경영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Advertisement for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at Greenway Home Loans. Features a large quote: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Advertisement for Young Ah Fashion (영아패션). Promotes "Young Ah Fashion" with various clothing items. Text includes: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and contact info: T. 443-440-20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im Kyung-ya (김경아 부동산). Lists properties for sale: 리스버그 싱글홈 (\$1,110,000), 레스턴 콘도 (\$426,000), 로턴 타운홈 (\$580,000). Includes a "Moving Sale" announcement and contact info: 703-919-0472.

Advertisement for Kim Eung-won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Promotes a chiropractic clinic for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 Text includes: "교통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and contact info: T. 410-740-0055.

푸틴은 북 무기 노리고 ... 김정은, 좌러우중 포석 다진다

(러시아) (중국)

우크라진 장기화로 북 무기 절실 푸틴, 대선후 네번째 방문국 북 선택

북, 러와 '자동 군사개입' 논의 전망 ICBM 등 군사협력 제도화도 나설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정부가 나서서 방북을 공식 확인하였고 '예정된 일정'이라며 김빠기 전략을 구사했다. 푸틴은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 벨라루스 및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이어 네 번째 방문국으로 북한을 선택했다. 모스크바가 평가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스토크치니 우주기지서 푸틴의 방북을 강력하게 요청한 데 대한 응답이다. 선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던 2000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 24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가 됐고 러시아에게 1년 이상 미사일을 공급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 격세지감의 상황에서 푸틴은 왜 평양에 가며 김정은과는 어떤 주제를 논의할까? 이들의 묘한 만남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주는 파급 영향은 무엇일까? 정상 간 밀착으로 인한 세부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군사적 거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인기 상품이 되었다. 지난 70년간 초지일관 재래식 무기 생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전략적 가치가 급등해 북한 외교의 만조기(滿潮期)가 형성됐다. 그간 고난의 핵 개발로 군사동맹 관계인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계가 여의치 못했던 북한은 동북아 국제 정치에서 이단이었다. 국내 정치가 생물인 것처럼 국제 정치도 정지된 것이 없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자세를 바꿨다. 북한으로서는 중·러를 등에 업고 한·미·일에 대응하는 신냉전 구도의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러 정상 간 연결 단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하되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다. 푸틴이 베이징 다음으로 평양을 찾는 핵심 이유다.

다음은 정치적 거래다. 정상회담에서는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이 논의될 것이다. 당시 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1990년 소련이 한·소 수교 후 조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1996년 폐기됐다. 북한은 1961년 북·중 우호조약만으로는 한·미·일에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러시아와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한 신(新)우호조약 체결로 좌(左) 러시아, 우(右) 중국 외교 틀을 구축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러시아의 무기 특수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동맹 포석이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범죄자를 추적하는 감시카메라를 끄고 북한의 족쇄를 풀어주었다. 러시아와의 신우호조약 체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러시아의 뒷배를 받고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거론하는 푸틴의 발언에 자극받아 핵 위협이 고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는 우주항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거래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2분 만에 폭발했다. 김정은은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을 예고하였지만, 관건은 기술이다. 북한은 6개월 만에 기존의 백두산엔진에서 연료·산화제를 바꾼 새 대형엔진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정은이 보스토크치니 우주기지에서 대형 엔진에 관심을 보이더니 무리한 엔진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러시아의 대형 로켓을 무조건 따라 하다가 사달이 났다. 러시아 기술진을 맹신했는지 애초에 무모한 시도였는지는 미스터리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단순 기술 이전만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크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받거나 혹은 완제품 엔진을 통으로 받을지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부분이 있다. 이외에 핵추진 잠수함, 전투기 등도 북한의 관심 품목이다. 양국 간 군사협력의 제도화가 최종 목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거래다. 북한은 중국과 식량과 물자 지원 등의 경제적 실리를 얻으면서 베이징의 정치적 노선을 추종하는 종법적(宗法的) 관계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 국경이 닫힌 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일하는 10만여 명이 달하는 북한 근로자의 귀국과 재입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저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만났으나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대체할 경제적 후견국으로 러시아 카드를 꺼내놓았다. 관광, 경공업, 농업 투자 및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파송 등이 핵심 의제다.

북·러의 결탁과 밀착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차가운 북서풍을 강화할 것이

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푸틴은 6월 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러 밀착 입장에 뜻을 밝혔다. 북·러의 밀착은 우리 안보 불안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차적으로 북·러의 결탁이 북·중·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 편향으로 심기가 불편한 중국과 2+2 외교안보 대화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북·러의 군사협력에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한·러 전략대화도 모색해야 한다. 살아 움직이는 한반도 체스판에 대응하는 민첩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 '오물풍선' 수위 조절에 ... 정부도 대북 확성기 추가 방송 안내

오물풍선-확성기 사태 소강 국면 북, 퇴비대신 폐지·비닐만 담아 보내 정부, 대북 전단 단체와 간담회 추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으로 촉발된 긴장 국면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오물풍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을 조절했다. 상황 관리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북은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 9월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력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이미 확인됐다. 북한은 이날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빼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간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4차 오물풍선 부양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비례적·단계적 대응 원칙을 밝힌 정부는 북한의 9~10일 4차 오물풍선 도발에도 추가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풍선의 내용물이나 김여정 담화 등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김여



지난 9월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풍선. [연합뉴스]

정은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이

들어간 것이 없다" "우리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며 풍선을 살포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실제 북한이 살포한 3~4차 오물풍선에는 퇴비 등을 넣어 보낸 1~2차 도발과 달리 폐지와 비닐만 담겨 있었다.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미묘하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도 강도 높은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관련 민간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 안팎에선 굳이 간담회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긴장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대한 직접 타격을 시도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준전시상태까지 치달았다. 이를 경험했던 터라 사태 악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남북 모두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은 전국 778곳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정영교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카중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네트워크/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원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자연의 청소부 지름 9cm의 배양접시 위에서 버섯 신희종 균사체가 실처럼 뻗은 덩굴 망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검은 덩어리들은 균사체가 형성한 균핵이다. 버섯은 생애 대부분을 땅속에서 균사체로 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버섯'은 식물의 꽃에 해당하는 버섯의 생식기관 자실체다. 균사체가 적절한 온·습도를 접하면 균핵·자실체를 형성하고 포자를 뿌려 번식한다. 버섯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이다. 생태계에서 식물이 생산자, 동물이 소비자라면 균류는 분해자 또는 환원자다. 유기물을 분해해 무기물로 환원한다. 자칫 동·식물 사체와 배설물이 쌓여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는 숲을 지키는 '자연의 청소부'인 셈이다. 사진·글=최기용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여성 국민 영웅 글·그림 이원복

1412-1431

진 디르크*로 상징되는 여성 국민 영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거나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 젊은 몸으로 신봉에 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끝내 생명을 바쳐 신화하는 것이다.

인도의 여성 국민 영웅 라니(왕비) 락슈미 바이*는 중북부 토착국 잔시의 왕비로 남편이 죽자 백성을 이끌고 영국에 저항했고

1828-1858

1857년 세표이 항쟁이 터지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영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1858년 전투 중 손탄에 맞아 전사한다. 그녀의 나이 30세였다.

락슈미 바이는 인도 독립 항쟁의 상징으로 인도 여러 곳에 그녀의 동상이 서 있다.

1906-1931

에밀리아 플라테르*는 지금의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귀족 여성으로

1831년 폴란드-리투아니아가 러시아 지배에 저항해 11월 봉기가 터지자

남장을 하고 수백 명의 의용군을 조직하여 전투에 나섰다.

폴란드군 리투아니아인 보병 부대를 이끈 에밀리아는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대장으로 진급하였는데, 그때까지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계급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중병에 걸려 1831년 12월에 2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는 지금도 폴란드-리투아니아에서 진 디르크*로 불린다.

일제에 항거하여 3·1운동에 앞장서 싸운 유관순 열사는

같은 고문 끝에 18세에 사망했다. 진 디르크가 희생당한 것이 19세 때였다.

*고향에 있는 에밀리아 플라테르의 상

*어린 시절의 유관순

인도네시아에서 국민 영웅으로 숭상되는 라덴 아쟁 카르티니*는 자비의 귀족 출신으로

능동한 네덜란드어로 네덜란드 본국의 지식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독립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표명했다.

우리가 자기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우리 나라 말로 조목조목 열거했네. 기막힌 우리 나라 말로 이유를

1879-1904

또 여성의 교육과 해방운동에 전력을 바쳐 학교를 세우고 직접 교육에 나섰다. 25세 나이에 요절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 운동의 선구자이자 국민 영웅으로 추앙하여 그녀의 생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다.

말 날은 저 4월 안에 산후 합병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카르티니

자바공주의 편지 카르티니

진 디르크처럼 무기를 든 여성 국민 영웅도 많지만 펜을 든 여성 국민 영웅도 나라이다 있기 마련이다.

*하리 카르티니(카르티니의 딸)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 85세 \$406,309 25년후 (3% 복리인상)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통증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우리말 바꾸기

쓰기에 낯아 보이는 말들

‘실시’란 낱말은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다. 공문서나 그것에 가까운 글에서 흔히 보인다. 흔한 것을 넘어 과도하게 보일 때도 적지 않다.

아무래도 습관 같아 보인다. 아니면 문장에 엄격함을 담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란 단어는 대부분 불필요해 보인다.

① 지난주에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②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③ 다음 달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④ 불우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⑤ 시험 감독은 시험 실시 직전에 알 수 있다.

흔하게 보이는 문장의 풍경들이지만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①은 ‘방제훈련을 했다’고 하는 게 더 좋다. 굳이 ‘실시’를 넣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③의 문장에서도 ‘실시’를 빼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④는 ‘실시하고’ 대신 ‘펼치고’라고 하면 어떨까. 그게 더 낫겠다. ⑤의 ‘실시’는 ‘시작’이 더 어울린다. ‘실시’보다 일상적인 말들이 더 좋은 문장을 만든다.

‘같은 기간’을 뜻하는 ‘동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일상의 독자들에게는 그리 낯익은 말이 아니다.

‘전년 동기보다 많이 올랐다’ ‘작년 동기 대비’의 ‘동기’는 ‘같은 기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상식적인 종교가 귀해진 시대



장열
LA중앙일보
사회부 부장

기사 보도 후 “우리 아이도 그곳에 있다. 제발 도와달라”며 제보 전화들이 걸려왔다. 가족 간 관계를 끊게 하고 조부모도 모르게 아이를 입양하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독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종교라는 특정 영역 안에서 발생한 일이지 상식선에서 해석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 단, 믿음과 신앙의 영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성과 상식 등이 배제된 종교적 가치관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

종교는 실존 너머 신념의 영역이다. 비가시적이다. 그래서 이성은 종교에 있어 불편한 요소다. ‘신’이라는 성스럽고 초자연적 존재를 따르는 종교를 두고 이성 또는 상식을 통한 판단은 마치 절대자 앞에서 무례한 발상이나 신앙심의 부족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분명한 건 이성만으로는 종교를 온전하게 풀어낼 수 없다. 세상사는 아직도 인간의 제한된 사고나 인식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한다. 이성의 한계다. 실존의 이성으로 영적인 세계를 담아내는 종교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대신 종교는 관념적이지만 이성도 포괄한다. 상식의 영역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만큼 깊고 광활한 세계다. 이성의 작동은 신념이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영역에서 타락, 일탈, 비상식, 성폭력, 초호화 건물 건축, 설교 표절, 맹신, 착취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맹목적 신앙에 제동을 거는 유효한 장치가 된다. 종교심을 강조하면서 가족과의 인연까지 끊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종교 생활 가운데 상식선에서 불편한 일이 계속된다면 그건 신앙심으로 버텨야 할 일이 아니다. 이성이 무뎠지거나 마비되기 전에 그 집단을 떠나는 게 옳다. 다큐멘터리나 언론 등에 자주 언급되는 종교 단체만 문제는 아니다. 일반 교계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건 그야말로 복이다. 그만큼 어려운 인연이다.

종종 좋은 교회가 어디인지 묻는 이들이 있다. 답변은 간단하다. 심오하게 신학적 잣대까지 들이댈 필요는 없다. 목사의 설교 내용이나 수준이 다소 알아도 괜찮다. 투박한 운영, 일 처리 등으로 약간의 답답함을 느껴도 본질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 전반적으로 교회 전체의 방향성이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게 가장 좋은 교회다.

종교적으로 그만큼 훈타해졌다. 상식적인 종교가 매우 귀한 시대다.

이아침에

시니어의 시간



김영중
수필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스스로 삶의 시간표를 짜야 하는 고민이 시니어의 몫이다. 시간은 마치 그릇과 같다. 밥을 담으면 밥 그릇이 되고 죽을 담으면 죽 그릇이 된다. 시간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삶의 의미를 정의했다.

많은 사람이 돈 낭비는 아까워해도 시간 낭비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고산증을 겪어봐야 산소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느끼는 것처럼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시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재산이다.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삶의 운택

함이 결정된다. 돈 있고 시간도 있어야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분노의 자리를 연민의 자리로 채우고 허욕에서 벗어나 맑은 눈빛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시간, 세상을 조망하는 지혜와 이해력이 높아지는 시간, 그 시간이 시니어의 시간이다. 시니어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짧더라도 알맹이가 꽉 찬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는 홀로서기의 스케줄을 짜야 한다. 신앙은 물론, 봉사활동, 여행, 취미생활도 하며 스스로 삶을 만들어야 한다.

피곤한 사람은 피하는 것도 시간의 질적 사용의 한 방법이다. 책도 아무것이나 읽지 말고 양서들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 이 모임 저 모임에 나가 다른 사람 뒷말 하는 데 맞장구치는 것도 시간 낭비다. 시니어의 시간은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고, 저녁노을에도 감동하고, 자주 자주 감탄할 때, 나이의 숫자를 의식하지 않는 즐겁고 건강한 시니어의 삶이 될 것이다.

산다는 것은 배급받은 시간을 쓰는 것이다. 시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현명하게 나이를 먹는 비결이며, 조화가 아니라 향기 있는 생활로 시니어의 시간을 사는 일이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다. 20대에는 능장을 피우는 것 같던 시간이 65세가 넘으니 꿈결처럼 흘러가 버린다. 내 인생에 배급받은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시니어들은 모이면 건강 이야기다. 누가 갑자기 쓰러졌고, 몸 어디가 이상하면 무슨 병의 증상이고, 어떤 병에는 무슨 약이 좋다는 등이 화제의 중심이 된다. 의학자들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라고 말한다. 100세 장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건강관리?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건강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다. 시간은 돈이라고들 말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시간은 돈, 그 이상이다. 시간은 구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시니어가 우두커니 앉아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본다. 지적 자극이나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급격히 쇠퇴한다고 한다. 물론 치매도 빨리 올 수 있다. 시니어는 인생의 오후이다. 오후는 오전보다 더 길고 다양하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시니어에 주어진 삶의 숙제다. 시간은 차별이 없다. 다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머천트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연년대표 **703-354-1515**
 2층 소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FATHER'S DAY
파더스 데이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250** **1+1**
 홍삼 로얄 앰플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160** **1+1**
 홍삼 로얄 본액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진성 어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김오곤 침향 녹용단

\$40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00 \$159.99

광동 침향환

20% Sale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맞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당뇨, 동충,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양성/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 멘 매스틱

meditree 케번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Nutridom Collagen

캐나다산 마린콜라겐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경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이름 키즈10

이름 황성주생식

징크크린 정

가장식 보충제 및 만성 질환환자에게

농협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양성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황성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1oz \$40, 4oz \$120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공짜선물이 팡 팡

황풍정 홍삼 국내 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기침이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어기 힘들다.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선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자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환씨 환,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사름하지 않은 맛있는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합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 고품질 천연 수면제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중영 Satur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대표전화 : (703)281-9660

Saturday, June 15,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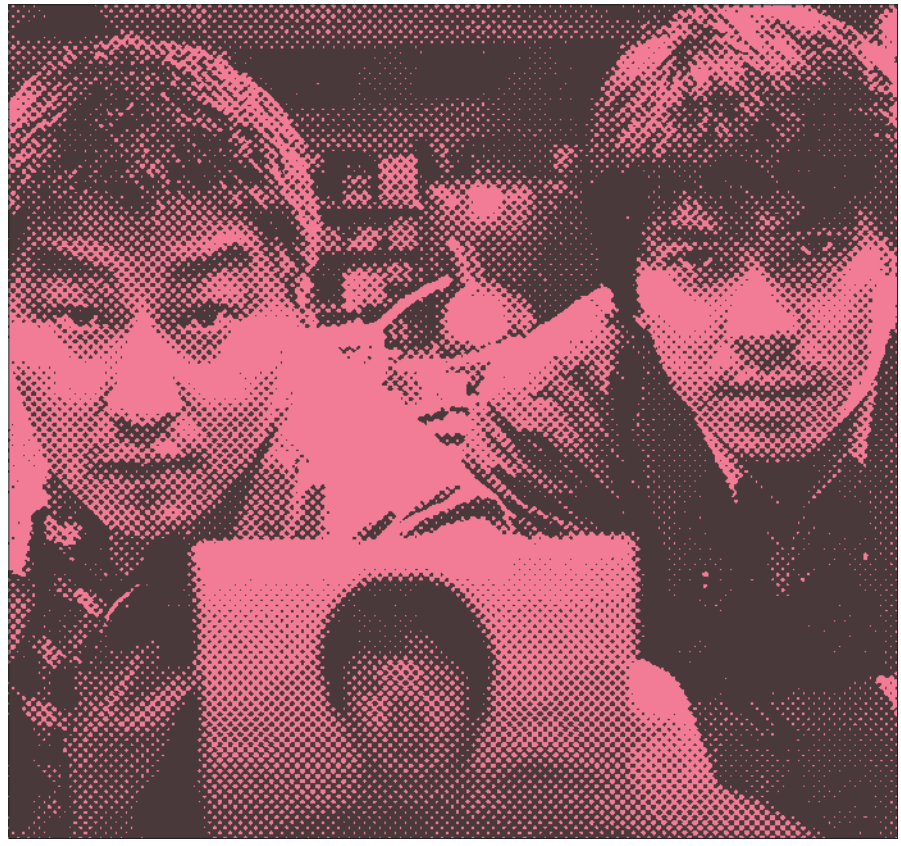
억울한 '범인의 추억' 막으려면 죄של름 없는 과학수사가 답이다

지금은 봉준호씨가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고 그의 모든 작품들이 흥행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초기작 '살인의 추억'(2003)을 가장 좋아한다. 그 영화를 동네 극장에서 보았을 때의 팽팽한 긴장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 긴장감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던 당시에 그 살인마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심지어 이 영화도 보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일어난 10여 건의 살인사건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역사상 사회적 파장이 가장 컸던 사건이자 과학수사 발전의 시동을 건 사건으로 평가된다. 범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차마 지면에 옮길 수 없는 엽기적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반경 2킬로미터 안에서 불과 1달 동안 4건의 강간살인이 발생하자 온 나라가 발각 뒤집어졌다. 화성에 특별수사 본부가 꾸려지고 5년 동안 연인원 40여 만명의 경찰(방범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명)이 투입되었다. 국내 단일 사건 역사상 최대 기록이다. 수사본부에서 조사한 사람이 2만1280명이었고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3000여명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살인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범행은 대답해졌다.

“딱 보면 티 난다” 필요하면 증거도 조작
‘살인의 추억’의 주인공은 박두만(송강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송강호(왼쪽)와 김성경이 수사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두 형사 역을 맡았다. (중앙포토)

호 분)과 서태윤(김성경 분)이라는 두 형사다. 두 형사의 수사법은 대조적이다. 지역 토박이 박두만 형사는 ‘직감’을 토대로 수사한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곧잘 “딱 보면 티가 난다”고 한다. 그의 별명은 ‘무당 눈깔’이다. ‘티가 나는’ 사람을 지하실로 불러 속옷만 입혀놓고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실토할 것을 압박한다. 가령 정신지체가 있는 백광호가 피해자를 좋아하는 적이 있다는 이유로 옥바치며 자백을 강요한다. 필요하면 증거도 조작

한다. 그는 피해자가 발견된 흙길 위에 백광호가 신던 신발 밑창을 찍어서 발자국을 만든다.

서태윤 형사는 박두만 형사와 정반대다. 박두만과 달리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엘리트 형사로 인정받던 그는 “서류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라며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중시한다. 그런 서태윤에게 박두만은 “대한민국 형사는 두 발로 수사한다”며 “미국은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연방수사국(FBI)이 머리를 안 굴릴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

은 좁기 때문에 두 다리로 다니면 범인이 다 잡힌다. 잔머리를 계속 굴리고 싶으면 미국에 가라”고 조롱한다.

서태윤의 수사는 진척이 별로 없었다. 당시 과학수사의 발전 수준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지문 대조나 부검 정도 외에는 과학수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1984년경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유전자 감식 기술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다. 심지어 경찰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범인이 누구지 물어보았고,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는 글이 쓰인 허수아비를 화성 곳곳에 세워두라는 “무당의 말대로 경찰이 허수아비를 세우기도 했다.

당시의 어설픈 과학수사는 오히려 진실을 오도해서 큰 문제를 야기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정맥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잘못 추정한 것(진범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다. 범인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을 확고한 전제로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수사팀이 2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했음에도, 심지어 나중에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까지 조사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만약 국과수가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 아닌 O형이라고 제대로 판독했다더라면, 아니 차라리 범인의 혈액형을 특정할 수 없다고만 했더라도 이춘재는 그 당시에 잡혔을 가능성이 컸다. 당시 작성된 용의자 몽타주를 보면 이춘재와 얼굴 및 체격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민 변호사·작가
» 6면 '과학수사'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 직장상해보험 | 메디케어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건강보험 |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 **자동차 보험료** 👉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Partner 보험회사
Nationwide | Mercury Insurance | Progressive | National General Insurance
Stillwater | Berkshire Hathaway Insurance | Safeco Insurance | The Hartford | AIG

‘화장실’로 돌아온 거장 “완전에 이르면 세상은 없다”

빔 벤더스는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상업주의 탈피를 외쳤던 60, 70년대 독일의 영화사조 ‘뉴저먼 시네마’를 주도했던 감독이다. 1984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파리, 텍사스’, 천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베를린을 그린 1987년작 ‘베를린의 천사’(Wings of Desire)가 그의 대표작이다.

벤더스의 영화들은 대체로 전후 독일의 회의적 운명론과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동시에 타문화를 침식하는 미국 문화에 대한 비판을 특징으로 한다. 80년대의 전성기 이후, 침체기를 가졌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극영화보다는 ‘피나’(2012),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2014), ‘안셀름’(2023)과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주로 활동해왔다.

빔 벤더스의 6년 만의 장편 컴백작으로 일본의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에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오스카 국제장편영화의 일본 출품작이었던 ‘퍼펙트 데이즈’는 도쿄시의 ‘화장실 프로젝트’ 홍보영상 기획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인식이 지배적인 공중화장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쿄시는 2022년 초 벤더스 감독에게 단편 4편 중 1편을 의뢰한다.

“예술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단편 제작을 의뢰받았을 때, 도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나를 화장실의 비중이 높은 일본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워서 그 제안이 고마웠다.”

그와 일본, 특히 도쿄와의 인연은 70년대 초로 돌아간다. 그가 50년대 일본영화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에 매료되어 일본에 빠져들어 가던 시기였다.

“처음 도쿄를 돌아다니다 길을 잃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지하철을 타고 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이 거대한 공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던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도쿄와 사랑에 빠졌다. 옛것들과 현대적인 것들, 고층빌딩과 지하 2층, 3층 고속도로 등 혼란스러움 가운데 보이는 심플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가 둘러본 시부야의 공중 화장실들은 ‘위생의 사원’처럼 보였다. 도시



일본의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에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퍼펙트 데이즈’는 도쿄시의 ‘화장실 프로젝트’ 홍보영상 기획에서부터 시작됐다. 독일 영화의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6년 만의 장편 컴백작. [Neon]

‘퍼펙트 데이즈’의 빔 벤더스 감독 도쿄시 화장실 이미지 개선 홍보에서 시작 6년 만의 컴백작서 사람·예술의 궁극 탐구 영화의 길 이끈 오즈 감독에 바치는 헌정

의 복잡함, 그러면서도 평화로우 보이는 생활 공간, 그 안에 보이는 미로가 그를 유혹했다. 공중화장실을 소재로 한 빔 벤더스 버전의 도쿄 ‘퍼펙트 데이즈’의 제작 동기다.

“화장실 그 자체보다 그 안에서 사람과 예술을 찾아내고 싶었다. 일본에서 화장실은 작은 성역이다. 평화와 존엄이 존재하는 곳이다. 단편은 나의 언어가 아니다. 화장실을 소재로 한 장편영화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공동선’ 의식, 도시와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은 그에게 영화로서 접근하기에는 버겁고 너무나도 새로운 영역이었다. 각본을 함께 작업한 타카사키 타쿠마와 많은 토론을 하며 벤더스 감독은 마침내 ‘우리의 남자’ 히라야마의 캐릭터를 찾아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배우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히라야마를 연기한

일본의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다. 야쿠쇼는 이 역으로 칸영화제를 비롯, 일본 아카데미상, 도쿄도영화제, 아시아 영화제, 시애틀평론가협회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최우수남우연기상을 수상했다.

“야쿠쇼는 평소 존경하던 배우였다. 그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지닌 히라야마의 삶을 연기할 수 있는 최고의 배우였다.”

‘퍼펙트 데이즈’는 공중화장실 청소부가 직업인 한 남자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행복의 디테일’을 찾아가는 내용을 다룬다. 주인공 히라야마는 늘 겸허하며 걸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는 도심 한구석의 외로운 영혼이었음을, 벤더스 감독 특유의 시적인 터치



60, 70년대 ‘뉴저먼 시네마’를 주도했던 감독 빔 벤더스. 1984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파리, 텍사스’, 천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베를린을 그린 1987년작 ‘베를린의 천사’가 그의 대표작이다. [Neon]

로 묘사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건, 가장 낮은 지점에서 깨달음을 얻은 히라야마의 내면이다. 그는 과거를 가진 남자이다. 그가 어떻게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지옥을 경험했는지도 모르는 히라야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된다.”

떨어지는 나뭇잎이 태양 빛에 반사되는 실루엣을 히라야마가 촬영하는 장면이 있다. 벤더스 감독은 히라야마의 일상 안에 숨어있는 상징성을 ‘코모레비’라는 말로 설명한다.

“코모레비라는 햇빛에 의해 벽에 춤추는 나뭇잎의 그림자 이미지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에서 히라야마는 단순함과 겸손함을 배운다. 그리고 청소부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히라야마는 자신이 가진 몇 안 되는 것들에 만족한다. 그는 구식 필름 카메라로 나무 곁에 앉아 코모레비의 순간을 포착하고 문고판 책만을 읽으며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카세트테이프로 록음악을 듣는다.

“공중 화장실 청소부는 ‘열등한’ 직업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인 행위이다. 평등과 겸손, 공동선의 몸짓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것이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걸 알고 공동선의 개념을 이해하게 됐다.”

‘퍼펙트 데이즈’는 벤더스 감독이 그의 스승 오즈 야스지로에게 헌정하는 영화다. 1982년, 오즈 감독의 마지막 영화 ‘꿈치의 맛’(1962) 이후 20년 만에 다큐멘터리 ‘Tokyo-Ga’를 제작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 다시 도쿄에 입성, ‘퍼펙트 데이즈’를 제작했다. 두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히라야마인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즈 감독의 어떠한 점들이 그의 영화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궁극적으로 그를 일본 문화에 심취하게 했을까.

“그의 영화에 스며든 모든 느낌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그의 영화의 모든 것이 독특하다.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들이지만, 그가 펼치는 이야기들에는 영원성이 담겨 있다.”

‘퍼펙트 데이즈’는 ‘Always’라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를 통해, 우리의 삶이란 독특한 이벤트, 독특한 만남, 독특한 순간이 사슬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을 뿐, ‘완전(Perfect)’에 이르면 그 이상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분히 동양적인, 그리고 극히 단순한 진리를 탐구하는 영화다.

김정영 영화평론가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나는 원래 마르크스주의자 재일교포 북송 좋은 일인줄... 1993년 실상 듣고 마음 바뀌”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할
동안 공로로 '물망초인상'을 받았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북
한 인권 상황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왼쪽은 오가와 교
수가 발행한 계간지 『생명과 인권』. 김상선 기자

1960년대 일본의 대학가 분위기는 좌파 일색이었
다. 미·일 안보조약을 반대하는 과격 시위가 그
치지 않았고, 교수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지
지하는 대자보를 내걸었다. 그 시절 좌파 지식인
들 사이엔 북한을 이상향으로 보는 풍조가 만연
했다. 1963년 도쿄대 동양사학과에 입학한 오가
와 하루히사(84) 역시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에
매료된 좌파 청년이었다. 그가 한국에 관심을 갖
게 된 것도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철학사』를 읽
으면서였다. 그랬으니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
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지지하는 입장
이었다. 사회주의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희
망에 넘쳐 북한행을 선택한 재일교포들에게 감
명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모교의 교수가 된 그는 북한 정권
이 가장 싫어할 만한 단체를 결성했다. 1994년 발
족한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
임’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북
송사업의 실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고, 북한
인권 운동가들조차 북송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
하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었다. 북송사업은 재일
교포들 본인의 선택의 따라 조국(북한)으로 돌
아갈 수 있게 한 인도주의를 앞세웠지만, 실상
은 “누구나 배불리 먹고 교육·치료가 무상인 지
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재일교포들을 속
인 사기극이었다. “지키는 모임”의 결성을 전후로
“차별을 피해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갔건만, 자
본주의 물을 먹고 왔다가나 출신 성분이 나쁘다
는 등의 이유로 북한 안에서 차별이 시달렸다”
는 북송 교포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왔
다. 오가와 교수는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
영)가 매년 5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10년 이상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물망초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을 받기 위해 서울에 온 오
가와 교수를 만났다.

-북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3년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던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듣는 자리였다. 그 식당 여주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셋 다 북송선을 탔다. 10여 년만
인 1979년 북한 당국의 허락을 얻어내 겨우 북한
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귀국했다고 증언했다. 이듬해 다시 방북해 들은
소식은 두 아들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나
머지 한 명은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런 사실조차 발설하지 못하
고 속으로만 삭였다고 했다. 남은 두 아들의 안전
에 대한 걱정에서였다. 또 다른 여성은 오빠가 북
한으로 건너갔는데 정치범으로 몰려 체포돼 죽
었고, 남아있던 올케만 뇌물을 주고 겨우 탈북에
성공했다고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적나라하
게 보여주는 육성이었다. 나는 원래 마르크스주
의자였는데 그때 북한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널리 알리겠다는 다
짐을 하게 됐다.”

북 인권 증진에 기여, 물망초인상 수상
-마르크스주의자였다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
장이었을 텐데.

“도쿄대 재학시절 학내 투쟁을 했고 교수가 된
직후에도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한마디로 철저
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당시의 나는 북한이 이
상적인 사회주의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당연히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보내는 북송사업
에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을 앞세워 1인 독재체
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
가가 아니라 개인 숭배에 몰두하는 독재국가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전체주의의 기원』
을 쓴 독일 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국가의
요건으로 일당 독재, 비밀경찰, 강제수용소 등
을 꼽았는데 북한이 이에 딱 맞는 나라가 된 것이
다. 내가 북한 인권 운동에 적극 나선 것은 젊은 날에
대한 반성으로도 볼 수 있다.”

-“지키는 모임”을 만들 무렵 한국에선 북송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사실 한국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나보다 2년 정도 늦은 셈이다. 당시 막 출범한 한
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의기투합해 북한 인
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중 하나가 영어·일어·한국어로 된 『생명
과 인권』이라는 계간지를 만들어 북한에 강제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성과가 있
었다고 하는데.

“우리 단체는 북송 재일교포들이 겪었던 부당
한 인권 탄압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앞서 기각된 두 번의 소송과 달리
최근 세 번째 소송에선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
다. (이 소송의 피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다.) 지난해 10월 말 도쿄고등법원이 ‘북송 재
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의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관할권이 없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도쿄지방법원으로 사건
을 환송했다. 북송 사업이 일본에서 시작됐고,

20년의 보상 시효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탈북
일본인들의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고 이들이 여
전히 고통받고 있어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올해 안에 배상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탈북에 성공한 북송 교포들 중 일부는 일본 정
부에도 사기극에 동조한 책임을 묻는다. 북송 사
업은 국교가 없던 북한과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양측 적십자사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진행됐고,
일본 정부는 적극 협력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보다 핵·미사일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이 전한 일
화다. 2001년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 총리가 방북
해 김정일과 회담할 때 태 전 의원이 통역했다.
당시 페르손 총리가 의제에 없던 인권 문제를 거
론하면서 ‘북핵 문제가 실사 해결된다고 해도 인
권 문제가 남아 있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
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김정일은 ‘우리와 서방
은 인권의 사회·정치적 개념부터 달라 합의가 쉽
지 않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차이점을 줄이면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김정일은 강석주 외무성 1
부상에 ‘유럽이 인권 대화를 하자는 것은 우리
내부를 파보겠다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유럽
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미국 강경 보수파를 놀
려둘 수 있다. 유럽을 속이는 대책을 연구해야 한
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뒤 북한 외무성은 미
국과 유럽이 인권 공세로 나오면 핵실험 같은 초
강경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핵위기를 고조시
키면 어쩔 수 없이 ‘선(先) 핵, 후(後) 인권’ 상황
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익재 기자

▶ 4면 ‘오가와 하루히사’로 이어집니다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d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영화 '카브리올레' 19일 개봉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 조광진
“일에 지치는 순간 언제든 찾아와
관객들,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갖길”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무리한 지시에도 웃는 얼굴로 “네”라고 답하는 게 사회생활의 ‘치트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실과 친절로 무장한 채 달려온 서른살 직장인 오지아(김새록)를 기다린 것은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거기에 절친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자 그는 무너지고 만다.

19일 개봉하는 영화 ‘카브리올레’는 번아웃(Burnout)에 직면한 ‘K직장인’의 이야기다. 도저히 이렇게는 버틸 수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날, 주인공 지아는 전 재산을 털어 오픈카 카브리올레를 산다. 그리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호기롭게 제안한다. “일주일 동안 나랑 여행해주면 이 차, 너 줄게.”

뻘한 로드무비처럼 보이지만, 영화는 꽤나 독특하다. 생동감 넘치는 화면 속에 엉뚱한 유머가 톡톡 터져 나온다. 감독의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웹툰 ‘이태원 클라쓰’를 그린 원작자이자, 2020년 이 작품이 JTBC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각본까지 직접 쓴 조광진(37) 작가의 감독 데뷔작이다.

12일 언론사사회가 열린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만난 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건 오랜 꿈이었다. 이번 스토리는 웹툰이나 드라마보다는 영화라는 장르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감독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번아웃’이란 소재를 택한 건 개인적인 경험이 컸다. “스무살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만화를



‘번아웃’에 시달리던 지아(김새록)는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시골 청년 병재(류경수)를 만난다.

[사진 플러스엔터테인먼트]

그리나라 쉴 틈 없이 달려왔어요.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평소 같으면 순식간에 해내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비슷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일에

사명감이 있든 없든, 지치는 순간은 찾아오더라고요.”
고급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주인공은 낯선 시골길에서 한가한 청년 병재(류경수)를 만난다. 그동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느릿하고 빈틈 많은 삶과 만나면서 지아의 마음에도 차츰 여유가 찾아온다는 결말을 예상할 때쯤, 영화는 예상의 반전으로 편지를 날린다. 조 감독은 뜻밖의 전개에 관객들

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결심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태원 클라쓰’가 겁 없이 도전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달궜다면, 이번엔 경쟁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지친 마음을 정조준했다. 늘 웃으면서 “힘들지 않아”라고 말하던 지아가 자신 안의 뒤틀린 마음을 거침없이 내뽐을 때 보

는 이에게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던 주인공이 오히려 ‘나’를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이들도 느꼈으면 합니다.”

그는 자신이 청춘들의 이야기를 계속 그리는 이유에 대해 “그 시절의 경험이 강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웹툰 작가로 명성을 얻기 전 호프집 알바를 비롯해 공사 현장, 물류 센터 등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다. 신용불량자가 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시기 등을 거치며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기질이 길러졌다. 그는 “최근엔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느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 만화 ‘슬램덩크’에 전율을 느낀 후 만화가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조 감독은 드라마와 영화 작업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의 매력에도 푹 빠지게 됐다. “웹툰은 거의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1인 작업인 반면, 영화는 여러 사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소통에서 편이라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다른 이들이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더 나은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웹툰 연재와 함께 드라마 각본 작업과 영화 제작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카브리올레’를 만드는 동안은 흥행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는데, 개봉을 앞두고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 빛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에 욕심이 생긴다”며 “다음 영화로는 초절정 엘리트와 야수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하드보일드 범죄물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 3면 ‘오가와 하루히사’에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북한의 교묘한 전략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축소시키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평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순신 장군·서재필 박사 가장 존경
-한국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1960년대 초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철학사』에 등장하는 실학자 홍대용

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국과의 첫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은 18세기 조선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면서 철학적으로도 매우 출중한 인물이다. 홍대용에 대해 좀 더 알고자 연세대에서 1년간 연구 활동을 하기도 했다. 사실 나는 젊은 시절 서구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시아가 서양에 비해 과학적, 논리적, 철학적, 비판적 정신이 약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동양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답습했는데 홍대용의 실학 정신에 푹 빠졌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20년 동안 ‘조선문화강좌’를 열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과 서재필 박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는데.
“공교롭게 두 분 다 일본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국적과 무관하게 조국이 위협에 빠졌을

때 헌신적인 애국심을 발휘해 나라를 구하려 한 영웅이라는 점에서 두 분을 존경한다. 특히 이순신 장군 연구를 위해 ‘임진왜란 연구회’를 만들어 울돌목 등 전적지를 답사하기도 했다.”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 열성적인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력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국 진보 진영에 대한 생각은.
“과거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분

들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같은 민족인 북한의 2500만 명이 노예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진보진영이 눈을 감아서야 되겠다. 원래 주사파였다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인권운동에 뛰어들은 분들도 한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다.” **최익재 기자**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숏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Oakton Condo 2 br 2 baths, good condition Oakton High School \$335,000	Alexandria Condo 2 br 2 baths \$375,000	Manassas Park Condo 2 br 2 baths Elevator, 1500SF, 1 Car, 센터빌 10분거리 \$320,000
Alexandria Single Shortsale 6 br 5.5 baths, 2 Car Built 2006 \$1,030,000 (시세 140만)	Woodbridge Condo 2 br 2 baths \$280,000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GIANT REALTY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뻐뻐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A매치 데뷔골까지 34년 54일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죠”

“이 한 골을 넣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 나 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감각의 첫 골을 터뜨린 주민규(34·울산 HD)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싱가포르와의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이 7-0으로 이기는 데 앞장섰다. 지난 3월 태국과의 경기에서 ‘만 33세 343일’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역대 한국 선수 최고령 A매치 데뷔 기록을 세웠던 주민규는 세 번째 경기였던 싱가포르전에서 ‘34세 54일’의 나이로 A매치 데뷔 골을 터뜨렸다. 한국 축구 최고령 A매치 데뷔골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중국과의 아시아 2차 예선 최종 경기에선 결승 골에 힘을 보탤 예정이었다. 후반 16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주민규가 페널티 박스를 파고들자 중국 수비수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렸다. 그 덕분에 2선에 있던 공격수 이강인(파리생제르맹)에게 슈팅 찬스가 열렸다. 중국전 이튿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축구장에서 주민규를 만났다. 그는 “A매치 데뷔 골을 기록한

덕분에 부담감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넣은 골 중 가장 값지다”라고 말했다. 주민규는 K리그에서 138골을 기록 중이다. 이동국(228골), 데얀(198골·이상 은퇴)에 이어 통산 최다 골 3위를 달리고 있다.

주민규는 A매치 데뷔 골을 기록한 뒤 양손을 귀에 갖다 대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는 “대표팀 경기에서 팬들이 ‘주민규’를 외치기까지 무려 34년이 걸렸다. 팬들의 환호를 더 크게, 더 오래 그리고 더 소중하게 듣겠다는 뜻의 세리머니다. 앞으로 더 자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팬들은 주민규에게 ‘주리 케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주민규의 이름과 잉글랜드의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31·바이에른 뮌헨)의 이름을 합친 말이다. 케인은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32·토트넘)과 콧비를 이뤘던 스트라이커다. 주민규는 “(손)흥민이와 뛰면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춘 것처럼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나온다. ‘주리 케인’이란 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규의 성장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다. 밀바다인 연습생으로 시작해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대표팀에 뽑혔기 때문이다. 한양대를 졸업한 주민규는 2013년 K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연습생으로 당시 2부 리그 팀인 고양 HiFC(해체)에 입단했다. 당시 연봉은 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조건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주민규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발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슈팅 훈련을 했고,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2015년 2부 창단 팀 서울 이랜드 FC로 이적하면서 포지션도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바꿨다.

주민규는 “연습생 때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됐다. 이랜드에선 평생 뭘 포지션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슬퍼하는 것도 사치였다. 프로에선 살아남는 것이 곧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탄한 체격(1m83cm·82kg)에 정교한 킥으로 무장한 그는 이랜드 입단 첫 시즌에 23골을 터뜨리며 2부 리그를 평정했다. 2019년엔 울산 유니폼을 입고 꿈에 그리던 1부 무대를 밟았



A매치 데뷔 골 당시 세리머니를 재연하는 주민규. 팬들의 환호를 더 크게, 더 오래, 더 소중히 듣겠다는 의미다. 김경록 기자

다. 2020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지만, 이듬해 22골을 터뜨리며 생애 처음으로 1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2023년 다시 울산으로 이적한 그는 그 해 또다시 득점왕(17골)에 오르며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토록 염원하던 태극마크의 꿈은 지난 3월 황선홍(56) 임시 감독이 그를 발탁하면서 이뤄졌다.

주민규는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끝까지 버틴 덕분에 지금 웃게 됐다. 연습

생, K리그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규는 2026 북중미월드컵이 개막할 때 36세가 된다. 그는 “팬들이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선물해주셨다. 이제 다음 A매치만 보고 열심히 달리겠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서너트 주민규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라며 빙긋이 웃었다.

피주영 기자

▶ 1면 ‘과학수사’에서 이어집니다

미숙한 과학수사는 진범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 수사방식과 맞물려 억울한 사람을 양산했다.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던 사람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갑자기 생긴 암으로 죽은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용의자가 3명이었고 경찰이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이춘재가 범인이었으므로 모두 허위자백이었던 셈이다. 그 중 윤모씨는 소아마비인데도 쪼그려뒹굴 시키는 등의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8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윤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에도 미숙한 과학수사가 역할을 했다. 당시 국과수의 담당관은 방사성동위원소 감정법을 활용해 “현장 음모와 윤씨의

음모는 동일한 음모로 볼 수 있음”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상 방사성동위원소 감정법은 화학이 있는 지층과 같이 수십만년 또는 수만년 동안 특정 원소가 축적된 경우에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불과 며칠 지난 이후의 음모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이 자명했고,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었다. 심지어 국과수 담당관은 윤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모 수치를 사용했고 그마저도 조작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졌다. 2020년 윤씨는 재심 재판을 통해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던 경찰들은 이미 그 공으로 특진했고 경찰을 퇴직한 뒤였다. 윤씨는 진범 이춘재보다도 자신의 무고함을 몰라준 검사, 판사가 더 많다고 했다.

1990년 11월 15일 9차 살인사건이 발

생한다. 그 직후 경찰은 용의자(영화에서는 박해일 분)가 범인이라 판단한다. 그 역시 가혹행위 끝에 자신이 범인이라 자백한다. 피해자의 피를 소나무에 닦았다는, 진범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술까지 한다. 그런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직전 피해자의 옷을 보니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정액이 묻어 있었다. 그 정액이 피의자의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영화에서는 미국으로 설정되었다)까지 샘플을 보내 유전자 감식을 했다. 정액의 주인과 용의자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용의자를 풀어주게 된다. 이 유전자 감식이 우리나라 수사에서 최초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 유전자 감사가 아니었다면 윤씨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또 생겼을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김종빈 강력부장으로 훗날 검찰총장이 된다.

과학수사, 인권 보호하며 진범 규명 가능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수사가 박두만 형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고문이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인정되었다. 18세기까지 프랑스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철제 의자에 앉힌 채 점점 더 화롯불 곁으로 가까이 가게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나사 모양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넣었다. 조선 시대에도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거나(포락炮烙),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물을 뿌려 얼굴에 겹겹이 올려 놓아 숨을 못 쉬게 하면서(도모지塗貌紙) 고문했다. ‘난장(亂場)’은 두 발을 묶어서 거꾸로 들어올린 다음에 발바닥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고문 방식인데, 이때 발가락이 떨어져나가고 피가 튀어서 ‘난장판’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

놀랄게도 이런 고문은 재판을 통해서 혐의가 확인된 이후에 가하는 형벌

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수사 현실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압 수사를 하면 진범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양산된다. 그렇다고 수사를 느슨하게 하면 억울한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범이 도망갈 여지가 커진다. 이러한 관습적 수사 관행을 따르면서 진범을 더 잘 잡고 인권을 더 보호한다는 것은, 마치 밥을 많이 먹으면서 살을 뺀다는 말처럼 모순적이다. 그런데 과학수사는 억울한 사람을 줄이면서도 진범에 다가갈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말하자면 밥을 더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과학수사는 최대한로 발전해야 한다. ‘과학수사’라는 말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수사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정재민 변호사·작가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을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운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집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aT Center
New York

LOTTE^{PLAZA}market

2024 글로벌성장 농식품 해외판촉행사

MD LOTTE^{PLAZA}market VA

일시: 2024년 5월 9일(목) ~ 6월 16일(일)

5.9(목) ~ 5.12(일)

락빌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5.23(목) ~ 5.27(월)

센터빌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5.30(목) ~ 6.3(월)

엘리콧시티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6.6(목) ~ 6.9(일)

애난데일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6.13(목) ~ 6.16(일)

게이더스버그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주최: LOTTE^{PLAZA}market

행사주관: FoodKorea Co. Ltd / Korepia Corp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매매 구인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쿡/쿡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꿈 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낙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샵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증정품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살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국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Contract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70,0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ls **\$58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